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

- 노동 권익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현장 소통·의견수렴 등 기능 수행 -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29.(월)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 서울(4.29.)·대구(4.29.)·부산(4.29.)·평택(5.7.)·청주(5.7.)·광주(5.10.)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2.28.~3.11. 간 1,002명 참여

〈근로자 이음센터 주요 기능〉

<p>무료 상담</p> <p>공인노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률 상담 ●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노동법 교육 	<p>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센터로! -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직업트라우마센터로! - 임금체불 등 사건 접수 희망시 노동지청으로! 	<p>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 공간 제공 ●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 서울·평택·청주 센터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	---	---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의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근로자들의 생각
- [붙임2] 근로자 이음센터 안내도
- [붙임3] 행사개요
- [붙임4]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TF	책임자	팀 장	박은정 (044-202-776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종길 (044-202-7765) 이나래 (044-202-7768)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책임자	팀 장	김현규 (02-6021-1065)
		담당자	과 장	홍수민 (02-6021-1185)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근로자들의 생각

☞ 국민생각함(권익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24.2.28.~3.11.)

근로자 이음센터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점



유OO (남, 30대, 반도체업종 종사자)

노동조합이 없어 직장내에서의 고민을 어디에 토로하기 어렵고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마땅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허OO (남, 30대, 금융업종 종사자)

근로자가 평일 근무 시간에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말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OO (여, 30대, 의료보건업종 종사자)

주변에는 불합리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많습니다. 취약근로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OO (남, 60대, 서비스업종 종사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김OO (여, 60대, 제조업종 종사자)

근로자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 제언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OO (남, 40대, IT업종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토론하고, 근로자끼리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소외되는 근로자 없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OO (남, 50대, 유통업종 종사자)

근로자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통로를 마련해주고 상담 내용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었으면 합니다

박OO (여, 20대, 교육업종 종사자)

서울, 경기도,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도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센터가 생겨 접근이 용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OO (남, 50대, 제조업종 종사자)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들 스스로도 노동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어려운 노동법령에 대한 교육컨텐츠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표번호 1668-1007

근로자 이음센터

근로자 이음센터 안내



•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 ② 운영시간 : 평일 10~20시, 토요일 9~17시
- 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1로 131, BYC하이시티 C동 125호
- ④ 연락처 : 02-3488-1951~2
IT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 ② 운영시간 : 평일 10~20시, 토요일 9~17시
- ① 청주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9호
- ④ 연락처 : 043-272-9097~8
반도체, 바이오 산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평택 근로자 이음센터

- ② 운영시간 : 평일 10~20시, 토요일 9~17시
- ①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02호
- ④ 연락처 : 031-668-9308~9
자동차 부품, 물류 산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대구 근로자 이음센터

- ②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①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3층
- ④ 연락처 : 053-605-6424~5

•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

- ②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①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5층
- ④ 연락처 : 062-609-8600~1

• 부산 근로자 이음센터

- ②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①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8층
- ④ 연락처 : 051-520-4988~9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입니다

무료



상담

공인노동사

- 노동법률 상담
-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노동법 교육



지원

- 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 취업알선,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센터로!
 -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직업트라우마센터로!
 - 임금체불 등 사건 접수 희망시 노동지청으로!



소통

- 소모임 공간 제공
-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 서울·평택·청주 센터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붙임 3**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 행사 개요**

□ **일시:** '24. 4. 29.(월) 10:30~

□ **장소:**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 주요 내방객: 구로디지털산업단지 IT업종

□ **참석자 (안)**

- (정부) 장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노동개혁정책관, 서울관악지청장
- (전문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박현호 (경사노위 근로자위원)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한석호
- (근로자) 구로디지털산업단지 內 미조직 근로자 6명,
노동의 미래 포럼 참여자 2명

□ **세부일정 (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40~10:55	10'	•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 - 테이프 커팅식 → 현판식 → 센터 시찰	장관, 근로자	공개
10:55~11:05	10'	• 축사 등	장관, 사무총장	
11:05~11:10	5'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계획 발표	노발재단 본부장	
11:10~11:50	40'	• 미조직 근로자 간담회 - 미조직근로자의 고충 및 근로자이음센터에 바라는 점	장관, 근로자	비공개
11:50~12:00	10'	• 홍보부스 활용 거리 홍보 - 커피, 브로셔 제공 등 근로자 대상 거리 홍보	장관, 사무총장	공개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간인 ‘근로자 이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입니다.
 -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 간 서로 교류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정부와도 소통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지어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2.28~3.11 간 1,002명 참여
 -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를 위해 수 개월간 노력해주신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 필요성]

- 우리 노동시장에는
 -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거나, 사용자와의 논의 테이블에 도달하기조차 힘든 조직화 되지 않은 노동 약자들이 많습니다.
 - 특히, 영세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일수록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오히려 이에 대한 의견을 내기에는 더욱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300명 이상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자 합니다.

□ 우리 헌법(제32조)에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근로의 권리」는 건강한 작업환경이나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 국가는 이러한 「근로의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기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해

- 업종별·지역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임금체불 근절과 같은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 나아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 입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 그러한 의미에서 ‘근로자 이음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고민이 있어도 토로할 곳이 없어 막막했던 우리 근로자들께서
‘근로자 이음센터’에 오시면,
 - 노동법률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고용·노동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민이나 목표가 있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 정책 제안과 같은 다양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6개 산업단지* 인근에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 * 서울(가산·구로디지털산단)·평택(평택산단)·청주(청주산단)/부산(녹산공단)·대구(달성·성서 산단)·광주(하남산단)
 - 특히, 서울·평택·청주에 있는 ‘근로자 이음센터’에서는
인근의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 * 서울(IT업종,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물류산업·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반도체·바이오산업 종사자)
 - 일하는 도중에 외출이 어려운
미조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 일부 ‘근로자 이음센터’에서는 (서울·평택·청주)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로자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 ‘근로자 이음센터’ 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근로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조직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계획]

-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조만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서는
1)이해 대변과 소통 활성화 기능, 2)일하는 여건 및 처우 개선,
3)갈등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지원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 한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함께, 지역노사민정, 노사협의회 등도
활성화하여 증충적 사회적 대화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내일모레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높이고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